

이영호, 『동아시아의 논어학』 서평

함영대*

이 책은 '동아시아 논어학'에 대한 정통 연구서이다. 일반적으로 동아시아라고 하면 해당 권역에 위치한 한국과 중국 일본을 말한다.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적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유교와 한자문화를 공유하여 '유교한자문화권'으로도 일컬어진다. 전통시대에는 베트남도 유교와 한자문화를 공유했다. 동아시아의 범주에 함께 병칭될 수 있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의 논어학'은 한국과 중국, 일본, 베트남의 논어학에 대한 연구가 될 터이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우선 중국과 한국의 논어학만을 연구대상으로 두고 일본과 베트남의 논어학에 대한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었다. 한국의 논어학 가운데서도 퇴계학과와 실학파의 논어학을 제외한 율곡학과와 양명학과와 논어학은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 책은 어느 정도는 미완의 '동아시아 논어학'인 셈이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 이영호 선생님은 이후의 연구과제를 “주역 연구를 통해 인간 삶의 다양한 삶의 현장을 살펴보며, 궁극적으로 ‘나’를 찾아가는 길을 들어서고자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 책 이전에『대학』 연구를 통해 유학의 본질을 탐색한 맥락과 연관되는 것으로 『대학』-『논어』-『주역』의 순으로 경전을 통한 유학연구의 삼부작을 진행하려는 연

* 경상대 한문학과 부교수

구자 본인의 연구기획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연구의 시야를 『논어』가 아닌 『주역』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일본과 베트남의 논어학에 대한 연구는 후일을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폭넓은 시야와 독창적인 견해는 그것만으로도 향후 『논어』를 연구하는데 적지 않은 연구시야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그 음미의 가치는 충분하다.

경학연구의 기본 시각과 연구방법론

경학은 보통 경전학과 경전주석학으로 대별된다. 심삼경의 본지를 탐색하는 것이 경전학이라면 그 이후 수많은 주석서를 연구하는 것이 경전주석학이다. 현대의 경학 연구는 경전 주석학에 더욱 관심을 쏟고 있다. 연구로서 이를 다시 본다면 '시대정신의 침병'으로서의 경학은 객관적 대상으로서의 학문으로, '내면 정신의 투사'로서의 경학은 주관적 체험이 반영될 수 있다. 이영호 교수는 전자를 지향하지만 후자에 마음이 가 있다고 고백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주요한 탐구 대상이 되는 주자와 이탁오, 퇴계의 경전주석학을 통해 그들이 느꼈던 시대의 책무와 정신의 향방을 고찰하려는 시도가 되는 셈이다.

중국의 주요한 경학자로 주자와 이탁오, 장대와 지육선사가 주요한 탐구 대상으로 포착되고 한국의 학자로 퇴계와 정구, 이진상과 광종석, 이익과 정약용이 채택되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유교와 불교의 사상적 교류를 중요하게 음미한 것은 그러한 문제의식의 소산이다.

이 책은 2장에서 경학을 연구대상으로 삼을 경우 어떠한 방법론을 시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연구시각을 보여준다. 곧 『논어』에서 흘

러가는 물을 보고 공자자 말한 ‘川上嘆’에 대한 맹자 이하 동아시아의 주요한 학자들의 해석을 두고 그 해석의 양상을 짚어 학술사의 변화상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그 결과 대체적인 변화의 양상은 이렇게 포착되었다.

1. 한 대 이전 유가의 수양론적 해석
2. 육조시대 유가의 인생무상론적 해석
3. 주자와 왕양명의 형이상학적 해석
4. 주자 이후 한중일 경학가의 탈주자학적 해석

이러한 탐색 결과 맹자 이후 위진남북조, 송원명청을 거치는 동안 유학이 동아시아에서 새롭게 형성될 때 경학은 거의 예외 없이 신유학의 이론을 생성하는 기지 역할을 했다는 학술적 사실을 확인했다. 곧 경학은 유학사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정수라는 관점이다.

중국, 주자와 양명의 경학, 또는 유불교섭으로서의 명대 경학

3장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중국의 논어학은 주자와 양명, 이탁오와 지육선사의 논어학을 주요하게 살펴본다. 특히 만명시기 이탁오 전후의 논어해석을 중심으로 유불교섭으로서의 명대 경학에 대한 분석은 명대 경학에 대한 동아시아적 연구시각의 신기원을 개척하고 있다.

주자의 논어학에서는 논어집주의 成書 과정과 이후의 계승과정을 검토했다. 주자의 후학에 의해 주자의 『논어집주』는 四書의 다른 주석서와 함께 원나라 과거의 핵심 수험교재로 채택되면서 그 이후 동아시아에서

과거제가 시행되었던 동아시아에서 거의 600여 년 동안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주석서의 전범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인데 정작 『논어집주』 자체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진척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물론 경학의 본산인 중국의 경우도 다르지 않아 '논어사연구'의 성과를 검토한 데에 따르면 백여 편이 넘는 『논어』 연구사 논문에서 『논어집주』에 관한 논문은 겨우 5편 정도에 불과할 뿐이었다.

검토 결과 주희의 『논어집주』는 송대 이전 전해지던 정현의 『논어정씨주』를 비롯한 6종의 주석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되 송대의 동시대 경학자들의 견해를 중요하게 채택함으로써 송대 학술의 결정체로서 『논어집주』의 학술적 성격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당의 훈고적 성과는 상당 부분 반영했는데 그 결과 주자의 『논어집주』는 한당의 훈고적 성과에 자신의 이학적 체계를 내용으로 하는 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당의 훈고학과 송의 성리학의 성과를 조화롭게 흡수한 주자의 『논어집주』는 그 이후 중국에서는 청대 일부 고증학자를 제외하고 주로 의리적 측면으로만 계승되었다. 한국의 경우, 역시 의리적 면이 강조되었으나 퇴계학과와 실학과 학자들에 의해 주자의 훈고정신에 대한 계승이 이루어졌다.

'주자학의 계승'이라는 논점에서 주자의 훈고정신을 주요한 논점으로 포착한 것은 매우 새로운 시각으로 보인다. 여영시에 의해 지적된 주자학의 도문학적 정신, 곧 지식주의가 청대 경전고증학에 계승되었다는 것이나 방동수가 염약거 등을 거론하며 『논어집주』의 고증학적 측면을 충실하게 계승했다는 점에서 '주자의 공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은 흥미롭다. 주자학과 경설에 대한 훈고라는 점에서 퇴계의 『논어석의』를 『논어집주』의 훈고학의 계승이라는 시각으로 이해한 것

역시 참신하다. 이는 일반적으로 주자학의 계승이라면 응당 주자의 성리학 계승 곧 그 의리주의의 계승이라고 보는 일반적인 관점을 상회하는 것이다.

이탁오를 중심으로 명대 양명학과의 경학을 다루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20세기 이후 일본 중국학자들의 명대 경학사 경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발로이다. 이탁오에 의해 진행되는 명대 경학은 ‘新經學’ 곧 새로운 경학체계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이영호 교수의 진단이다. 이탁오의 경학과 그 영향력은 사상사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지닌 경학체계로 규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존 경학과 차별성이 있으며, 그 영향력이 이탁오 개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단성과 학파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이탁오의 『論語評』이 지닌 경학적 주석의 내용과 그 형식의 특징은 그 자체로 매우 혁신적이다. 우선 성인의 경전과 성인에 대해 脫聖化하며, 감성적 비평을 시도한다. 이러한 경향은 ‘전후무후한 것으로 이탁오와 그의 영향력 하에 있던 일부 학인에게만 보이는 것’이다. 또한 사상적으로 儒佛會通을 지향하여 주석에 그대로 노출한다. 이러한 내용상의 전환은 주석의 형식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비평체의 주석이나 문예학과 경전주석학을 결합하는 형식상의 변화는 경전주석사에서 新境地였다. 이전의 주석이 의리체나 고증체였다면 이탁오의 주석은 비평체 경학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의 이러한 혁신적인 경전주석의 내용과 형식은 유가에서는 장대의 『論語遇』로, 불가에서는 지옥선사의 『論語點睛』으로 계승되었다. 이들은 이탁오의 비평체 형식을 계승하면서 경문의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유불회통을 시도하면서 이탁오의 『논어평』을 다수 인용했다. 내면의 심성과 감성의 중시, 문예학의 발흥, 유불회통의 추구 등 당대 학술사상사

의 지형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이들의 경전주석은 ‘신경학’이라고 지칭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이영호 교수의 분석이다. 다만 ‘狂禪’이라고 불릴 정도로 선에 지나치게 경도되었던 이들의 사상은 결국 그 폐단으로 인해 양명학의 전성기와 쇠퇴기를 동시에 견인했으며 동시에 심성학을 버리고 문헌학으로 학문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이러한 이탁오의 『논어평』을 중심으로 명대의 양명학적 경학을 논의한 것은 한국의 경우에도 드문 것이지만 중국의 명대 경학 연구에서도 첨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책, 『동아시아 논어학』의 백미이다.

보론으로 덧붙여진 이탁오의 『논어평』을 비롯한 『사서평』의 진위논쟁에 대한 시말은 상당히 일목요연하여 그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요긴하다. 보론의 두 번째로 수록된 ‘이탁오와 조선 유학’은 그 자체로 매우 흥미로운 논제인데 허균이 이탁오를 만난 사연에 대한 분석은 최초의 보고는 아니지만 그 사상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허균이 이탁오의 사상을 수용한 것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정약용과 이건창의 이탁오 수용 역시 매우 학술적 분석으로 의미심장한 것이다. 특히 허균, 정약용, 이건창의 이탁오 수용은 자신이 속한 사회나 가문, 학파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그 개인이 사상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높다면 이러한 개별적 수용도 그 위상만큼 의미가 있다는 진단이나 이러한 수용으로 인해 조선의 학술이 ‘정감의 중시, 유희의 회통, 탈주자학적 사유, 자득적 체험의 중시’ 등 다채로운 면모를 더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는 정곡을 얻은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조선의 양명학 수용에 대한 분석, 이를테면 조선의 양명학이 양명학 본래의 발랄함과 신선함이 축소되었다는 것에 대해 “그만큼 주자학과의 사상적 교류를 통해 안정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나 “퇴계나 이진상의 양명학에 대한 비판적 수용과 심즉리의 주장이 비

록 양명학파의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 또한 양명학파의 교통에서 생겨난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견해는 조선의 학술 실상을 진중하게 포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대의 논어학과 지옥선사의 논어학에 대한 분석은 이탁오의 논어평에 대한 분석만큼이나 인상적이다. 장대는 불교와 문학(수사학)으로, 또는 역사로 경전을 해석하면서 송대 주자학과 경학의 대종인 주자가 『사서집주』에서 종래의 경전주석을 폐기하고 북송대 도학자들의 주석을 집중적으로 반영하듯 명대 양명학파의 경학에서 동시대 학자 190명의 경설을 인용하여 이러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장대의 사서학은 명대 양명학과 경학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지옥선사의 논어학은 ‘유불교섭’의 시각에서 조명되었다. 지옥선사는 명나라 말기 사대고승 가운데 한 분으로 불교의 근원적인 진리를 드러내는데 도움을 받고자 사서의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들의 논어 해석은 경학사에서 소외되었던 양명학과 경학의 면모를 확인시켜 준다는 데에 그 일차적 의미가 있으며 유불사상의 상호교섭을 뚜렷하게 보여준다는 데에서 그 학술사적 의의를 부여했다. 이는 명대 경학에 대한 시야를 확보하는 데 적지 않은 학술적 기여를 한 것으로 저자 자신이 자부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한국, 논어학의 회집과 퇴계학과, 실학파의 경학

4장의 조선 논어학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서술은 ‘한국논어학사’에 대한 기본 서술로 정중하다. 이 전반적인 맥락을 서술하는 대목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130여 종에 이르는 조선 논어학의 성과 가운데 16세

기 이래 19세기까지 가장 중요한 논어의 주석서 28종을 선별하고 그 특징을 지목한 것이다. 학술사적 의미를 간결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6세기를 대표하는 퇴계의 논어 해석학은 그의 번역학과 연계되는 것으로 주자와 주자학파의 논어해석을 부연한 것이 가장 특징적이며, 『논어집주』에 등장하는 한자의 음과 훈을 제시하여 경전의 훈고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자신의 경문문리에 의해 독자적인 경문의 본지탐구를 보여준다. 곧 퇴계 논어학은 주자학과 논어학의 심층이해와 독자적 說經이라는 양대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의 제자 간재 이덕홍은 스승을 따라 주자학파의 이기심성의 논리로 경전을 해석하려 했다. 이러한 관점은 이후 퇴계학파에 의해 계승되며 19세기 이진상에 이르러 퇴계의 독자적 경전해석의 지향점이 계승된다.

17세기는 우암 송시열을 중심으로 하는 우암학파의 논어학으로 주자의 본의에 대한 정치한 탐색을 그 특색으로 한다. 그러므로 주자와 상이한 의견에 대해서는 강렬한 비판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주자의 문집과 주자의 경전주석서를 정밀하게 독서하여 사전류 저작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우암학파의 권위에 저항하여 후에 사문난적의 논란을 초래하기도 한 독자적 견해를 제시한 경학자가 박세당인데 그의 이러한 시도는 후에 실학과 논어학의 최초 실례가 된다.

18세기 논어학은 양명학의 정제두, 퇴계학파의 유장원과 유건휴, 그리고 이익이 대표적이다. 특히 중국과 한국의 논어 주석의 회집을 보여주는 유장원과 유건휴의 저작들은 퇴계학과 논어학의 계승적 측면을, 이익의 논어학은 ‘以史證經’의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19세기 논어학은 이진상과 곽종석이 퇴계학과 논어학의 측면을, 박문호는 우암학과 논어학의 계승적 측면을, 정약용은 실학과 경학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전체상에 대한 인식 아래 주요하게 검토된 내용은 퇴계학파의 정구와 이진상, 곽종석이며, 근기 퇴계학파는 이익과 정약용이다. 그 핵심만을 제시하면 정구의 논어학은 자신이 사승한 주자학과 퇴계학에 남헌학의 실천 중시의 면모를 더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퇴계학의 외연을 넓히면서 조선 후기 실학파로 이어지는 남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일찍이 학계에 제출된 적이 없는 '新語'로 경학의 관점에서 조선 유학의 흐름을 조정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주장이다.

이진상의 논어학은 그 범주가 주자학의 범주 내에 있는 것이지만 '活看'의 독법을 활용하여 기존 주석을 객관화시켜 자득적 요소를 강하게 노출했다. 이에 대해 이영호 교수는 그는 기존 주석에서 벗어나 '新義'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주자의 경학정신을 이었으며, 신의의 근거를 주자학적 의리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주자학적 경전주석사의 전통에서 있다고 파악했다. 이는 퇴계에서 시작된 주리사상의 발달에서 산생된 것으로 조선 주자학 발전의 정점이다. 이는 곽종석에게도 계승되는데 특히 경문 문리에 의한 독자적 경전 해석은 퇴계의 독자적인 경전해석의 측면을 계승한 것이다.

이익의 논어학은 주자의 경학 정신의 계승과 실천과 경세 중시의 관점이 중시되었다. 특히 논어의 해석에서 공자 당대의 역사환경에 대한 관심과 주의 환기는 해석에 있어 『춘추좌전』을 널리 활용하는 '이사증경'의 방법론으로 이어졌다.

정약용의 경학에 대해서는 박학과 평이한 실천론, 道心の 강조, 경문

에 초점을 둔 해석, 주자학의 비판과 계승의 공존 등이 지적되었다. 특히 정약용의 경학에서 중요한 관점은 조선의 주자학과 경학이 경전주석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데 반해 경문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주자학과 경학이 주자 경설의 異同과 本義에 관심을 기울인 것에 반해 정약용은 실천지향적 경전해석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징적인 것은 정약용은 주자와 주자학파에 대해 연속과 단절의 측면이 모두 있으나 조선 주자학파에 대해서는 확연히 단절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 조선의 주자학과 학자들이 학파 내에서 계승적인 측면을 면면이 이어가는 것과는 뚜렷이 구별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영호 교수는 조선 경학의 특징으로 ‘古의 지향’이라는 측면을 덧붙이면서 “퇴계에서 발원한 조선의 경학은 주자의 新注를 중심에 두고 경문의 본지 추구, 고주 중심, 신주와 고주의 겸채 등 다양한 경로로 발전”한다. ‘學’, ‘仁’, ‘敬’에 대한 자의 해석의 분석 결과 이러한 다기한 경로의 이유는 “『논어』의 본지와 주자의 신주에 내재된 추상성에 대한 모순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고주의 개념으로 다가선 것”으로 진단되었다.

다양한 주석의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제출한 탁월한 분석이다. 이는 옹당 조선의 다양한 경학 연구자들이 주자를 존모하면서도 경전의 본지에 대한 추구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이 드러난 것으로 이해된다.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면밀하기 때문에 수궁할 여지가 충분하다.

경학연구의 시야와 방법론으로서의 『동아시아 논어학』

이영호 교수의 동아시아 논어학에 대한 연구서인 이 저작은 앞서 검토된 바와 같이 동아시아 논어학의 중요한 국면에 대해 이전에 미처 드러내지 못한 중요한 학술사적 발견이 적지 않다. 경학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전체적인 시야와 연구방법론은 물론 송대 주자와 명대 양명학파의 경학은 적지 않은 연구시야를 제공한다. 특히 이탁오의 경학 연구를 위시한 명대 양명학과 경학에 대한 연구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이 책이 중국과 한국의 논어학을 제한적으로 검토함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논어학'으로 붙여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대목에 있으며 단연코 이 저작의 백미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의 경학, 특히 퇴계학과 경학의 훈고학적 측면에서의 주자학 계승이나 정구 경학의 남헌학 수용, 실학과 경학에 있어서 정약용의 조선 주자학과에 대한 단절적 계승에 대한 관찰은 한국 경학 연구에서 새로운 연구시야를 개척하는 데 적지 않은 자양분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조선 학자들의 '古에 대한 지향'이 주자학의 학적 배경 속에서도 경전의 본지에 다가서려는 학자적 노력의 경주라는 관점은 조선 학술의 학적 독립함과 진지함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 저작에 배어있는 구절구절에는 이영호 교수의 경학 연구의 혜안이 자리잡고 있다. 논어연구자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학 연구자 나아가 동아시아 경학 연구자라면 응당 일독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아시아의 논어학의 연구대상이 일본과 베트남을 아울러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경학에 대한 연구성과로도 충분히 상쇄하고 남음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